



글 _ 김종면 대한매일 문화부 기자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 온 미국 시인 게리 스나이더는 나무나 산도 대표를 뽑아 의회에 보내고 고래에게도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농담 아닌 농담을 던진 적이 있다. 그의 말이 가볍게만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계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인류절멸의 위기를 우려하는 지금 21세기의 화두는 단연 녹색이다. 사회생태학·녹색정치학·생태철학·생태윤리학·생태문학 등 각 분야에서 불고 있는 녹색바람은 이러한 시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생태계 위기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환경에 관한 한편의 시나 소설이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생태학적 상상력》은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책이다. 영문학자인 저자 김옥동 교수(서강대 인문학부)는 문학은 생명의

언어를 통해 자연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환경전도사로 통하는 저자는 이미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한국의 녹색문화》 《시인은 숲을 지킨다》 등의 저서를 통해 우리 문단에 생태주의 복음을 전파해 왔다.

마르크스주의가 힘을 떨칠 때는 '변증법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유행했고, 러시아 사상이 미하일 바흐친의 이론과 관련해서는 '대화적 상상력'이라는 용어가 관심을 끌었다. 1990년대 들어서부터는 '생태학적 상상력'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인류가 그동안 이성을 도구 삼아 자연을 무참히 지배하고 착취해 왔음을 감안하면 오늘날 생태학적 상상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자는 "지금의 생태계 위기는 상상력을 하찮게 여긴 채 이성만을 신주처럼 떠받들어

온 결과"라고 지적한다.

환경문제를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환경문학, 생태문학, 녹색문학 같은 용어다. 이 말들은 낱어스만 다를 뿐 동어반복으로 들린다. 하지만 저자는 이에 대한 분명한 개념정의를 시도한다. 저자에 따르면 환경문학은 환경파괴나 자연훼손의 실상을 폭로하는 다분히 고발문학적인 특성을 지닌다. 반면 생태문학은 자연파괴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고발하기보다 환경위기나 생태계 위기의 원인을 좀더 근본적으로 파고드는 문학을 말하며, 녹색문학은 환경문학과 생태문학을 아우르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다.

저자는 서양문화권과 달리 동양문화권에서는 환경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기 훨씬 이전부터 자연친화적인 시가가 발달했다고 주장한다. 삶의 방식 자체가 자연친화적이라 할 수 있는 동양에는 서양에 비해 생태의식을 반영하는 시가가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물론 그 작품들이 참다운 의미의 생태주의를 구현하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한 예로 진흙나라 시인 도연명의 귀거래사는 뛰어난 자연시이지만 그 행간에는 자연을 개인적인 상처를 달래기 위한 도피처로 삼으려는 의지가 도사리고 있다. 자연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자연을 한낱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연명이 지방관리에게 배알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은 뒤 이 작품을 썼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전통시조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조 가운데에서도 특히 평시조에는 자연을 노래한 작품이 많다. 평시조 하면 으레 음풍농월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번쩍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듯 자연을 노래했다고 해서 모두 생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시조를 읊은 사람들이 사대부 계층이었던 만큼 그들이 노래한 자연은 성리학적 도의 구현이나 심미적 완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강호의 임자로 자처한 윤이 후나 스스로를 서호주인西湖主人이라 부른 이충 등의 예에서 보듯 그들에게 자연은 소유의 대상 혹은 객체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민중의 삶의 애환을 노래한 하이쿠 시인들은 생태의식을 오롯이 보여준다. 달 없는 그믐/천 년 묵은 삼나무를/겨안는 폭풍 하이쿠의 아버지 마쓰오 바쇼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칠혹 같은 그믐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자연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히 여기는 하이쿠를 저자는 어느 나라의 문학보다도 완벽한 생태문학 장르로 꼽는다.

‘성서와 생태주의’도 흥미 있는 주제다. 기독교는 생태적 인간 반생태적인가.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일찍이 ‘현대 환경위기의 종교적 배경’이라는 글에서 일신교인 기독교가

오늘날의 환경위기를 가져온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빌미를 주었다는 점을 창세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버리고 범신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토인비의 결론이다. 이에 대해서는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악마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성서를 인용할 수 있다는 서양적언이 있다. 성서는 어떠한 맥락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 저자에 의하면 자연에 대한 성서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엄격히 구분한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녹색사상에 대해서도 이 책은 비중 있게 다룬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모든 존재는 육체와 영혼과 그림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정령신앙에 기초한 물활론적物活論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 저자는 시애틀 추장과 체로키족 추장 롤링 선더(구르는 천둥) 등이 남긴 말을 통해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생태의식을 파헤친다. 이 세상에 잡초는 없다라는 롤링 선더의 말은 그들의 자연관을 압축해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언어와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다루는 언어생태학이다. 페미니스트들이 언어를 통한 성차별을 비판하고 포스트 식민주의자들이 언어를 통한 민족중심주의를 비판하듯 언어생태학자들은 언어를 통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한다. 이를 좀더 극단적으로 몰고가면 생태학적인 개명改名에까지 이른다. 꽃을 식물에 속한 친구, 종이를 나무가 죽은 시체, 우유를 인간이 훔친 암소의 젖 등으로 부른다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 책은 생태학적 상상력이라는 사유 방식을 통해 근대문명을 근본적으로 다시 읽고 새로 쓰게 만든다. 그러나 환경주의의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문명비평가 기 소르망 같은 이는 환경주의 혹은 녹색주의를 허점과 모순, 그리고 위협으로 가득찬 것으로 지목한다. 환경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도그마화된 자신들의 이념에 함몰돼 인류의 미래에 지극히 중요한 문제들에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 또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따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